

2020년 해양 경찰 3차 한국사

1. 다음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으며, 바닥은 평저 또는 원저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동삼동, 울주 신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 ① 검은 간 토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 ②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 ③ 주로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 ④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빗살무늬 토기이다.

④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① 검은 간 토기는 철기 시대에 제작되었다. ② 청동기 시대 이후의 내용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사유재산제와 계급이 등장하여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다. ③ 구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물을 얻기 쉬운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민인은 토착하여 곡식을 심고 누에치기와 뽕나무를 가꿀 줄 알며 면포를 만든다. 각기 장수(長帥)가 있어 큰 세력을 지닌 이는 스스로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한다.

- 「삼국지」 -

-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 ② 파종한 5월과 추수한 10월에는 제의를 행하였다.
-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다.
- ④ 특산물인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수출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는 삼한이다.

② 삼한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천 행사 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던 나라는 고구려이다. ③ 부여에 대한 내용이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④ 반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는 동예의 특산물이다.

3. 다음 중 삼국 시대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제에는 박사 제도가 있었으며, 일본에 유교 경전을 전해 주었다.
- ② 신문왕 때에는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畫像)을 들여와서 국학에 안치시켰다.
- ③ 고구려에서는 「사기」, 「한서」 등의 역사책과 사전인 「옥편」, 문학서인 「문선」을 이해하고 있었다.
- ④ 삼국 시대에는 유교의 충효 논리를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와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정답 : ②

② 국학 내에 김수충이 들여온 공자와 그 제자의 화상을 안치하며 문묘를 설치한 것은 성덕왕대의 사실이다.

① 백제 무령왕 때 단양이와 고안무는 오경박사로서 일본에 유학을 전하였다. ③ 고구려에서는 유교 경전인 5경 이외에도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의 역사서, 『옥편』, 『자림』 등의 한자 관련 서적, 문학 작품인 『문선』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④ 삼국 시대에는 충·효 윤리의 유교 이념을 보급하여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와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4. 다음 중 백제의 여러 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 ②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③ 고이왕 때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근초고왕 때 중국 요서 지방과 일본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였으며, 북으로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였다.

정답 : ④

④ 백제 근초고왕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 및 일본으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흥안령의 초원 지대를 장악한 것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내용이다.

① 성왕은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위하여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② 백제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가 유입한 불교를 수용(384)하였다. ③ 고이왕 때 중앙 관제를 정하여 6좌평과 16관품을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5. 다음 중 삼국의 한강 유역 쟁탈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비(碑)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북한산비 | ㉡ 단양적성비 |
| ㉢ 사택지적비 | ㉣ 중원 고구려비 |
| ㉤ 백두산 정계비 | ㉥ 광개토 대왕릉비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 사택지적비는 7세기 백제의 좌평을 지냈던 사택지적이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여유로움과 함께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학의 발달과 도교의 융성을 보여 주는 비석으로 한강 유역 쟁탈과는 관련이 없다. ㉤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의 만주 지역에 대한 국경을 확정하기 위하여 1712년 청의 요청에 따라 세운 비석이다. 백두산 정계비는 한강 유역의 쟁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북한산비는 555년에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세운 비석이다. ㉡ 단양 적성비는 551년에 진흥왕이 단양 적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격파한 사실과 함께 남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석이다. ㉣ 중원 고구려비(충주 고구려비)는 5세기 후반 장수왕이 남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비석들은 직접적으로 한강 유역의 쟁탈을 보여 주고 있다. ㉥ 광개토 대왕릉비에 고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쟁탈한 사실과 백제의 성을 공취한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 비석도 역시 한강 유역 쟁탈 과정으로 볼 수 있다.

6. 다음 중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왕자 대봉예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 (가) 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자리 잡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국명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닌데, 조정제도의 등급과 위엄을 지금 어찌 나라의 성하고 쇠한 것으로 인해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시켰고, 요동까지 진출하였다.
- ③ 위화부를 두고 관리 인사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 ④ 일본에 보낸 문서에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신라와 발해 사신의 자리다툼 사건(쟁장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최치원이 발해 사신을 신라보다 위에 앉히지 않아야 한다며 당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올렸다. 따라서 (가) 국가는 발해이다.

- ③ 위화부는 신라 진평왕 대 설립된 부서로 문관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인안(무왕), 대흥(문왕) 등은 발해가 사용한 독자적인 연호이다. ② 발해 선왕 대 말갈족 대 부분을 복속시켰고, 요동까지 진출하여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④ 발해 3대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를 '고려국왕 대흥무'라고 칭하였고, 일본에서도 발해의 왕을 '고려국왕'으로 불렀다.

7. 다음 중 가야 연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관가야인 전기 가야 연맹은 3세기 경에 성장하였고, 철의 생산과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 ② 고령 지역의 대가야는 5세기 후반 새로운 맹주로 하여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 ③ 금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였으나, 법흥왕 때 복속되었다.
- ④ 가야 토기는 일본에 전해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 ③

③ 금관가야는 법흥왕 대인 532년 신라에 복속되었으나,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대가야이다.

①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②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그 동안 낙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④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했는데, 수레형 토기 등이 일본 스에키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8. 다음의 내용이 실린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난 계축년 4월에 「삼국사기」를 얻어서 그 곳에 있는 「동명왕 본기」를 읽어보니, 그 신기하고 이상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나 허구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거듭 읽고 음미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가니,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신성함이며, 귀(鬼)가 아니라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그 사실을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 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생략한 내용을 시로 서술하여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
- ② 서사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 ③ 「삼국사기」의 신라 계승 의식을 비판하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려인의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드러내 보였다.
- ④ 무신 집권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몽골의 지배를 긍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④ 이의민 집권기인 1193년에 저술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신 정변 이후 사회적 혼란 속

에서 대두한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 ①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구삼국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삼국사기』에서는 제외된 고구려의 신이한 건국 사적을 서술함으로써, 고려가 성스러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다. ②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에 대해 쓴 장편 서사시로서, 이규보의 시와 글을 모은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9. 다음 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 경박에 되지 않는데도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천체들이 서로 의존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고 있는 우주 공간의 또 다른 별들이 있다.

- 「의산문답」 -

- ①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였다.
② 지전설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극복과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③ 농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는 집단 농장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④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는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8세기 북학파의 실학자 홍대용이 주장한 지전설에 대한 내용이다.

② 홍대용은 지전설을 바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이론적 세계관을 비판하였으며, 나아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전개하였다.

①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자고 한 것은 이익의 한전론에 대한 내용이다. 홍대용은 성인 남성들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농일치의 군대를 조직할 것을 제시하는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③ 정약용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30가구를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 제도인 1여(閭)로 하여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하고자 하는 여전제를 주장하였다. ④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 할 것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각 시대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라는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이 많았으나,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축조되었다.
② 백제는 웅진 시대 남조의 영향을 받은 고분이 축조되었다.
③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초기에는 사신도 같은 상징적인 그림에서 후기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으로 변하여 갔다.
④ 통일 신라는 무덤의 봉토 주위에 돌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 나왔다.

정답 : ③

③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초기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았으며, 후기에는 도교와 음양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점차 추상화되어 사신도 같은 그림으로 변하였다.

① 신라는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② 백제 웅진 시대의 고분 양식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④ 통일 신라는 고분 양식이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봉토 주위를 돌레돌(호석)로 두르고, 12지 신상(도교의 영향)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성덕왕릉, 김유신 묘, 괘릉(원성왕릉으로 추정) 등이 있다.

11.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권세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6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재상 중심의 정책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꾸었다.

- ① 공법을 실시하여 전세율을 낮추고 공평하게 부과하였다.
- ②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 ③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 ④ 호적 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을 실시하여 정군의 수를 늘리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조선 태종이다.

③ 태종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으며,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간원을 독립시켰다.

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의 공법을 제정한 것은 세종 대의 사실이다. ② 『경국대전』의 편찬이 마무리되고 이를 반포한 것은 성종 대의 사실이다. ④ 세조는 호적 관리, 호패법, 면리제, 오가작통법 등을 통하여 군역 증강을 도모하였으며, 보법을 실시하여 군역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다.

12. 다음에 서술된 군역 제도의 양상을 시기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호를 단위로 군역을 편성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편하여 보법을 실시하였다.
- ㉡ 지방의 각 진관에서 방군수포가 행해졌다.
- ㉢ 평민에게만 징수해 온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 ㉣ 상층 양인들을 선무군관으로 처음 편성하여 수포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 ②

㉠ 세조 때에는 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인은 현역병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다. ㉡ 16세기 균역의 요역화로 인해 대립과 방군수포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중종 때는 균적수포제를 실시하였다. ㉢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으로 군포가 감면되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선무군관포를 부과하였다. ㉣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의 실시는 흥선 대원군 집권기인 1871년의 사실이다.

13. 다음 고려 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이암은 원나라에 갔다가 「농상집요」라는 농서를 저술하였다.
- ㉡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 ㉢ 철전인 건원중보와 동전인 해동통보 등을 만들어 널리 사용하였다.
- ㉣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였다.
- ㉤ 발농사에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전기부터 일반화되었다.
- ㉥ 개경에는 시전을 설치하였고, 대도시에는 국영 점포를 열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 충선왕은 소금 전매제(각염법)를 실시하여 의염창을 설치하고, 한 해에 포 4만 필에 준하는 국가 수입을 유지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고려는 신라 말의 문란한 수취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도 설치하였다.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 고려 시대에는 개경에 시전이 설치되었고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

㉣ 고려 후기 이암은 중국의 관찬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1349)한 것이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다. ㉤ 고려 성종 때 철전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고, 숙종 때 해동통보가 주조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다. ㉥ 고려 시대 발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다가 조선 전기에 이르러 2년 3작이 일반화되었다.

14.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칙령 제41호
-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을/를 관할한다.

- 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하였다.
- ② 속종 때 안용복은 2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로 기록하였다.
- ③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일본 영토와 상관없는 곳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 ④ 1952년 UN군 사령부와 협의 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 구역에 포함시켜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은 독도이다.

④ 1952년 발표된 소위 ‘평화선(이승만 라인)’에 대한 내용이다.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경계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 밝히면서, 이후 한·일 간에 영토 논쟁이 벌어졌다.

①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條)에서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였다. ② 속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1693). 그 후에도 안용복은 자신을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 자칭하고 재차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1696). 한편 일본은 19세기 중반까지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 불렀다. ③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문서에 따르면 울릉도와 그 외 1개 섬인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영토를 편입할 때는 인접국인 대한 제국에 조회와 통보, 일본 정부의 관보 공시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편입 당시 독도가 아닌 프랑스 포경선이 불렀던 ‘리앙쿠르 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처럼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법적 불법성을 은폐하면서 필요에 따라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15. 다음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중략)…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 「윤치호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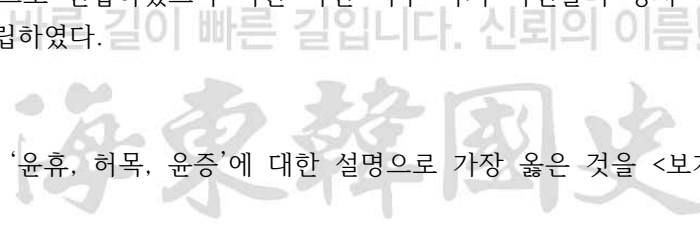
- ①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 ②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 ③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 ④ 사교 친목 단체인 정동 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사건'은 갑신정변(1884)이다.

①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의 급진 개화파가 청의 내정 간섭에 따른 개화 정책의 침체 등에 불만을 품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으킨 정변에 해당한다. 당시 급진 개화파는 제물포 조약 체결 이후 공사관 경비를 목적으로 주둔한 일본군의 협조를 약속받고 대외적으로 청·프 전쟁의 발발로 조선에 주둔한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자 정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청군에 의해 3일 만에 진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은 수적 열세로 인해 청군에 패퇴하였다.

② 갑신정변을 주도한 급진 개화파 세력은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일본군은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전주 화약이 체결된 이후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갑오개혁)을 강요하였으며, 추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침범하였다. ③ 갑신정변은 제3차 수신사였던 박영효를 따라 일본에 갔던 김옥균이 차관 도입에 실패하면서 내렸던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차관 도입 실패는 갑신정변의 배경이 되므로 결과라고 언급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정동 구락부는 1895년경 서울 정동에서 개화파 정치인들과 서구 외교관들이 사교와 친목 도모를 내세우며 만든 모임을 말한다. 이들 세력은 이후, 독립 협회(1896~1898) 창설을 주도하였다. 정동파를 구성하였던 친미·친러파 정치 세력들은 반일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였으나 아관 파천 이후 각기 자신들의 정치 지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대립하였다.



16. 다음 밑줄 친 '윤희, 허목, 윤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송시열을 비난했던 윤선도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매장되었고, 주자학의 절대성을 부정한 윤희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처형되고 그의 학문에 대한 연구조차 1908년 무렵까지 금지되었다. 송시열의 정적인 허목은 주자학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학문도 진리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하여 사후 사문난적으로 몰렸으며, 스승 송시열과 회니시비로 절교한 윤증 역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보기>
- ㉠ 6경과 제자백가 등을 통해 모순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았다.
 - ㉡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리학의 흐름에 대하여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였다.
 - ㉢ 이이의 학문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다.
 - ㉣ 사문난적을 계기로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된다.

- ① ㉠, ㉡
- ③ ㉡, ㉢

- ② ㉠, ㉣
- ④ ㉢, ㉣

정답 : ①

㉠, ㉡ 조선 후기 남인 계열의 윤희와 허목, 서인 개혁파인 윤증, 박세당 등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났

다. 그러나 이들은 주자의 학문 체계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서인(노론)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기호학파는 율곡 이이의 뒤를 이어 조헌, 김장생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로, 서인이 주를 이루었다. ㉡ 윤희는 경신환국 이후 사문난적으로 몰려 처형당하였고, 허목 역시 경신환국으로 삭탈당하고 낙향하였다. 윤증은 회니시비로 송시열과 갈라서게 되었고, 이후 소론의 영수로 추앙되지만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다.

17. 다음 중 일제 시기의 경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일제는 산미 증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주제를 철폐하였다.
- ㉡ 일제는 1911년에 조선 어업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어업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 ㉢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많은 양의 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었다.
- ㉣ 일제는 한국에서 남부 지방의 농민들은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 지방의 농민들은 양 사육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 ③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 조선 어업령은 무단 통치 시기인 1911년에 일제가 공포한 법에 해당한다. 일제는 이를 통해 기존의 조선 어민들의 기득권을 모두 부인하고 새로이 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을 통제하려 하였다. ㉢ 토지 조사 사업에서 기한 내 미신고 토지는 물론이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중이나 마을의 소유지처럼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공공 기관이 소유한 토지·산림·초원·황무지 등이 모두 총독부에 의해서 몰수되었다. ㉣ 만주 사변(1931) 이후 일제는 공업원료 증산을 위해 남부 지방의 면화 재배와 북쪽 지방의 면양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였다.

㉠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면서 종자 개량비, 수리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실제 경작을 담당하는 소작농에게 전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작농의 부담이 커지면서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러나 대지주는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되었고, 소작농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소작료를 인상하면서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결국 대부분이 소작 혹은 자·소작농이었던 농민이 기아 상태에 놓여 몰락하게 되었으며, 식민 지주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18.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가장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등을 결정하였다.
- ㉣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 ③

㉢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고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 김규식과 여운형 등의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 민주 임시 정부 수립 등을 포함한 좌우 합작 7원칙을 제시한 것은 1946년 10월의 사실이다.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여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16일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 22일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 다음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불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식에 참석한 기자
- ②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 ③ 대한 광복군 정부의 군사 훈련에 참여한 청년
- ④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법령은 1912년 제정된 '조선 태형령'이다.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법률로, 1919년 3·1 운동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폐지가 추진되고 1920년 4월부터 일본 내각이 조선 태형령 폐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③ 이상설을 정통령,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삼았던 대한 광복군 정부의 수립은 1914년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군사 활동을 비밀리에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었다. 따라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일본인의 조선 이민 및 척식 사업 수행, 식민지 수탈을 위해 세운 국책 회사로서 1908년에 설립되었다. ② 경의선 철도 개통은 1906년의 사실이다. 일제는 대한 제국 시기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미국인 모스로부터 사들였고, 차례로 경부선(1904), 경의선(1906)을 개통하여 주요 간선 철도를 장악하면서 경제 침탈뿐만 아니라 군사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④ 회사령 공포는 1910년의 사실이다. 회사령은 총독부에 의해 허가제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20.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충겸(심의겸의 동생)이 장원 급제를 하여 이조 전랑에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 ① 이를 계기로 심의겸 중심의 서인과 김효원 중심의 동인으로 분화되었다.
- ② 서인은 치인(治人)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혁을 통한 부국안민을 추구하였고, 동인은 선비들의 수기(修己)에 역점을 두어 지배층의 도덕성 제고를 중시하였다.
- ③ 동인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건의한 정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다.
- ④ 이이, 성혼의 문인들은 주기론(主氣論)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조선 선조 때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다.

④ 선조 대에 김효원과 심의겸의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이 계기가 되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 이후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은 심의겸을 지지하는 서인을 형성하였다.

① 선조 대에 김효원과 심의겸의 이조 전랑직을 둘러싼 다툼으로 심의겸 중심의 서인과 김효원 중심의 동인이 형성되었다. ② 동인은 『대학』 8조목 중 치인(治人)보다 수기(修己)를 강조하였는데, 수양을 통해 지배층의 도덕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반대로 서인은 수기(修己)보다 치인(治人)에 중점을 두어 제도 개혁과 민생 안정에 관심을 가졌다. ③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우의정에 특배된 송강 정철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동인을 사사하면서 동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건저 문제(세자책봉 문제)로 선조의 미움을 받아 양사에 의해 탄핵될 때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은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서의 분파가 이루어졌다.